

사회



“LH는 약속 지켜라” 광주시 동구 지원동과 동명동 주민 90여 명이 30일 LH공사 본사 앞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 보류·중단 통보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수시배치표’ 배포 놓고 대교협·입시학원 갈등

입시학원들이 대학 수시모집에 맞춰 학교·학과 배치 참고표(수시 배치표)를 배포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격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교협은 30일 “학생부와 모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토대로 한 수시 배치표가 수험생을 오도할 위험성이 크다”며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은 논설과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수시모집에서 점수 환산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학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재 학원의 배치표 작성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수시 배치표는 수시전형이 활성화된 2000년대 초반 대형 입시학원에서 많이 배포되기 시작했고, 학원은 물론 일선 고교에서도 입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올해는 이달 들어 학원가에 나돌기 시작했다.

이 표는 통상 각 대학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수능·내신 수준을 ‘최소화력기준’ ‘합격포인트’ 등의 표현으로 제시하며, 학원의 상담(컨설팅)에서뿐만 아니라 일선 고교의 진학 상담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상당수 대학은 이런 ‘줄세우기’식 배치표가 퍼지면 점수를 떠나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뽑자는 수시 전형의 기본 취지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들은 배치표가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교대 B등급 ‘현행유지’

교과부 평가, C등급 4개 대학 정원감축 제재

광주시 동구 지원동과 동명동 주민 90여명이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의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류·중단 통보에 대한 항의 집회를 벌이는 등 공사측의 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LH공사의 조속한 사업 추진’ 등 LH공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LH공사 관계자들은 공사의 재무구조가 급속하게 악화돼 현재의 상태에서는 사업 속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특히 주민들은 LH공사에 전체 부채가 109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정문제를 이유로 들어 서민 주거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임직원들에게 1000억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임직원들에게 1000억원대의 성과급까지 지급한 LH공사의 갑작스런 방침 변경으로 노후 주택의 재개발이 어렵게 되면서 대부분 서민인 주민들의 새 집을 갖고 싶다는 속원이 무산될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지원2동 3동장 노장숙(52)씨는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가 확정돼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었다”라며 “LH공사의 일방적인 중단 통보로 극도의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 재개발 대상지역인 ‘지원3구역’은 2008년 11월 LH공사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설계까지 마무리한 상태이며, ‘동명2구역’은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

해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공사 착공이 확실시된 곳이었다.

더욱이 아파트 신축 계획이 이미 95%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보류를 통보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달 15일 LH공사는 광주시 동구청에 공문을 보내 “재정여건이 어려워 언제까지 사업이 미뤄질 지 알 수 없다. 당해 지역의 주택 수급 현황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향후 판단할 사항이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3구역에는 490세대 1124명이, 동명2구역에는 624세대 1316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으며, 동구 지원3구역과 동명2구역 이외에도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서구 유촌·농성·화정2구역, 남구 양림2구역 등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 평가에서 부산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4개 대학이 C등급을 받아 재평가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초·중·고교사 양성기관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수업시연 및 현장실사 평가, 재학생·졸업생 만족도 조사, 교원인용률 조사 등을 종합한 ‘2010 교원양성기관 교육대학부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10개 교육대학 학부과정 평가에서 광주교대가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A등급 대학에는 학과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 등의 혜택을 준다.

광주교대·경인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진주교대 등 5개교는 B등급

(현행유지)를 받았다.

부산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는 C등급으로 분류돼 재평가 대상이 됐다. 1년 이내에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아 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D등급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현직교사의 재교육 가능한 수행하는 교육대학원 평가에서는 A·B등급이 단 한 곳도 없었고 10개교 모두 C·D등급을 받았다. 광주교대·서울교대 교육대학원이 C등급을 받았고, 광주교대·경인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8곳은 D등급이 매겨졌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4분 해질 19시 01분 달돋이 22시 10분 달질 11시 59분

8월의 마지막 날
대체로 흐리고 낮 한때 비가 온 후 개겠다.

광주	흐리고 안개비	25/29℃
목포	흐리고 안개비	24/29℃
여수	흐리고 안개비	24/28℃
완도	흐리고 안개비	24/29℃
구례	흐리고 안개비	24/29℃
해남	흐리고 안개비	24/29℃
장흥	흐리고 안개비	24/29℃
고흥	흐리고 안개비	24/29℃
순천	흐리고 안개비	24/29℃
영광	흐리고 안개비	24/29℃
진도	흐리고 안개비	24/29℃
전주	흐리고 안개비	24/29℃
남원	흐리고 안개비	23/29℃
목성	흐리고 안개비	23/27℃

〈오전〉 바다 풍향 풍속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목포 05:37 18:19 10:50 23:2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여수 12:30 --:-- 06:02 18: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6/29	24/30	25/32	25/32	24/31	24/30

2500만 고객을 위한 특별서비스 카드 하나SK카드

Touch 1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대어려운 이제 지급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박기준 전 지검장 조사

특검팀은 박 전 검사장을 상대로 진주지청에 제직하던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는지와 경위는 어땠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장은 정씨와 일부 식사 자리를 같이했음을 인정했으나 성접대와 금품수수, 접대의 대가성 등 핵심 내용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문의: 전화 (063) 227-0640
 (063) 227-9970

수원점 (081) 752-0940
 목포점 (061) 262-9200
 부산점 (063) 851-2422

아이와함께하는 제주도 관광 열차 여행

2010년 10월 4일 - 12월 31일

10월 4일, 11월 12일, 12월 18일, 19일, 25일, 26일
 11월 29일, 12월 6일, 13일, 20일, 27일, 28일

10월 4일 + 관광열차 + 해녀주 관광명소탐방 3박4일 ₩179,000-
 11월 29일 + 관광열차 + 미라도관광 + 우도 유람선 3박4일 ₩199,000-

문의: 02-382-8201